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부터 27년



지상파 음악토크쇼의 상징,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사진제공 | KBS

숨은 가수 발굴해 온 '유스케' 최장수 음악토크쇼로 발돋움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사실 1992년 KBS 2TV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는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10년 동안 톱심으로 자리를 지킨 덕분에, 다양한 음악토크쇼 계보를 이야기할 때 늘 첫 머리에 오른다.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는 심야 음악 라이브쇼의 시초로 꼽힌다. 고 김광석, 조동진, 장필순 등을 초대해 주옥같은 무대를 만들었다. 작은 무대에서 관객들과 가깝게 소통하는 이들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1995년 '이문세쇼'가 배턴을 이어받았다. 이문세의 친근한 매력에 돋보이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다. 1년 뒤 '이소라의 프로포즈'가 자리를 이었다. 가수 김경호는 '이소라의 프로포즈'의 신인 소개 코너로 스타가 됐다.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을 발굴해 호평을 받았다.

2002년 시작한 KBS 2TV '윤도현의 러브레터'는 6년간 음악 토크쇼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2008년 방송한 SBS '김정은의 초콜릿', KBS 2TV '이하나의 페퍼민트'는 연거푸가 진행자로 나선 음악 토크쇼로 눈길을 모았다.

2012년 나온 SBS '정재형 이효리의 유&아이', 2017년 방송한 '박진영의 파티파플'은 잔잔한 매력을 가진 심야 음악 라이브쇼에 발랄함과 유쾌함을 더했다. 2009년부터 전파를 탄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최장수 음악 토크쇼로 발돋움하며 두터운 팬층을 형성했다.

2010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방송 중인 KBS 1TV '울긋미직', SBS MTV '윤도현의 더 스테이지 빅플레이저'는 '유희열의 스케치북'과 더불어 오랜 시간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이돌 그룹이 장악한 최근의 음악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이들의 존재는 단연 빛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10주년 맞은 '유희열의 스케치북'...진행자 유희열 인터뷰

“10번째 생일...66만 방청객들이 주인공이죠”



가수 유희열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이끌고 있다. 10주년의 성공 비결로 제작진, 뮤지션, 관객을 꼽는다. 그는 "저는 완벽하게 차려진 무대에 잠깐 서는 정도일 뿐"이라며 "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10년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제공 | KBS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심야 음악토크쇼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늦은 밤 잠을 잊은 시청자와 10년 동안 감성을 공유하며 오랜 사랑을 받아 왔다. 2009년 4월24일 방송을 시작한 뒤 26일 10주년을 맞는다. 10년간 총 950여 명(팀)의 가수가 무대에 올랐고, 66만여 명의 방청객이 이들과 뜨겁게 호흡했다. 주역 유희열을 만났다.

10년간 뮤지션 950팀·방청객 66만명 동원
방청권 위해 매주 줄서는 관객들 대단하죠
녹화 전 분위기 띄우는 MC 덩동 숨은 주역



가수 유희열은 23일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10주년 특집 방송 녹화를 마친 뒤 늘 그래왔듯 서울 여의도 방송국 앞의 한 호프집에서 제작진과 함께 맥주 한잔을 들이켰다. 10주년이라고 해서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10번째 생일의 주인공은 진행자인 자신이 아니라 "제작진, 뮤지션, 관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10여 명의 제작진, 10년간 참여한 950여 명(팀)의 뮤지션, 66만여 명의 관객이 존재하기에 10주년을 맞았다고 믿는다.

23일 KBS 사옥에서 만난 유희열은 "10년 동안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건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다"고 겸손해했다. 하지만 10년간 매주 자신 앞에 펼쳐진 하얀 '스케치북' 위에 뮤지션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관객과의 거리를 조율해 이들의 호흡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첫 회 녹화가 끝나고 대기실에 앉아있던 기억이 난다. 진행을 맡게 돼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됐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가족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제작진 덕에 단 한번도 일하는 느낌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음악활동의 또 다른 창구로써, 음악을 열심히 못해 자책하는 부분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위안하고 있다."

유희열은 프로그램 제목에 자신의 이름이 붙은 게 10년이 흘러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모양이다. "전국노래자랑"에도 송해 선생님 이름이 안 붙지 않나. 저는 제작진이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잠깐 나가서 할 뿐이다. 제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하! 죄송스럽고 부끄럽다."

끝내 10년 동안 수고한 자신에게는 칭찬을 건네지 않았다. "생활의 중심이 됐다"는 소화가 전부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높았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1992년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로 시작해 20년 이상 KBS를 넘어 지상파 음악토크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높은 시청률과 수익을 내지 못해 위기가 많았지만 제작진이 버텼다"며 "20년간 이어온 연결고리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걱정하는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지켜줬다"고 했다. 이어 "스케치북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공과 거리가 멀지만, 그렇지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녹화에 앞서 사진 객석의 열기를 달구는 역할의 MC 덩동(오른쪽)과 유희열이 10주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S

않은 가치도 공존해야 더 괜찮은 세상이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유희열은 프로그램을 멋있게 꾸미는 뮤지션과 관객을 향해 입이 닳도록 고마워했다. "이들이야말로 '스케치북'의 10년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뮤지션들은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 즉 관객과 뮤지션"이라고 말했다.

'스케치북' 방청권은 공개 녹화 프로그램 가운데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구하기 어렵다. 관객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방청권을 받으려고 녹화 하루 전인 월요일부터 KBS 신관광개울 주변에 줄을 선다. 유희열은 "대단하다"고 혀를 내두르며 "직접 찾아주는 관객들 덕에 10년을 버텼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유희열은 숨은 주역으로 10년 동안 녹화 전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MC 덩동을 지목했다. 그는 "MC 덩동이 없었다면 1년 만에 폐지됐을 것"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음악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유명가수가 아니면 관객 반응이 싸늘할 때가 있는데, 노래가 끝나고 환호가 터질 때 가장 짜릿하다. 젊은 진행자가 말아야하는 생각에, 한 때 그만뒀야 하나 싶었지만 그건 보류다. 하하! 제작진이 당장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아쩔 수 없지만, 그 전까지는 선배가수와 후배들 사이에서 좀 무처럼 중간역할로 관객과 호흡하겠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조용필 선생님·BTS, 애타게 기다립니다”

기억에 남는 뮤지션엔 아도이 꼽아

'유희열의 스케치북'의 화려한 섭외력이 아직까지 닿지 못한 이들이 있다. 바로 '가왕' 조용필과 그룹 방탄소년단이다. 그야말로 '꿈의 게스트'이다. 유희열은 50년 넘게 활동하며 과거와 현재의 대중음악을 잇고 있는 조용필,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함께 한 무대에 서는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유희열은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초대하고 싶은 가수로 조용필과 방탄소년단을 꼽았다. 그는 "조용필 선배님을 모시고 싶다고 늘 얘기하는데 때마다 대답 없는 메아리로 돌아온다"며 웃었다. 방탄소

년단에 대해서는 "이들의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어떤 사람인지 옆에서 구경하고 싶다"며 "팬심"을 담은 바람을 전했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10년간 총 950여 명(팀)의 게스트와 함께 무대를 꾸몄다. 첫 방송이었던 2009년 4월24일 이승환, 이소라, 언니네 이발관, 김장훈을 시작으로 톱가수는 물론 아도이, 새소년, 우주소선사이드미러, 연남동 댄싱머머 등 숨은 실력파까지 다양한 아티스트와 뮤지션이 무대를 채워왔다.

유희열은 이들 가운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뮤지션으로 4인조 혼성밴드 아도이와 인디가수 오존을 언급했다. 100



조용필

방탄소년단

회 '더 뮤지션' 특집에 출연한 아코디언 가장 심성락 선생에 대한 고마움도 드러냈다. 유희열은 "심성락 선생님이 은퇴하며 팔았던 아코디언을 다시 구매해 연주한 날이 떠오른다"고 돌아섰다.

"제 역할은 뮤지션들이 돋보이도록 하

는 것"이라며 섭외는 "제작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말을 너무 못해 출연하기가 무섭다고 하는 가수들이 많다. 이이기도 중요하지만 음악이 주인공인 만큼 마음을 열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